

클린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Clinton Climate Initiative)

클린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이하 CCI)는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실질적이고, 측정이 가능하면서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각국의 정부 및 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CCI에 대해 알아본다. 글 이희송 (클린턴 재단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서울사무소 소장)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클린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이하 CCI)는 2006년 8월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실질적이고, 측정이 가능하면서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그 첫 번째 단계로 CCI는 세계 40대 대도시 기후변화 리더십 그룹인 C40 Cities·Climate Leadership Group(이하 C40, 제 3차 C40 총회가 2009년 5월 서울시에서 개최됨)와 독점적인 프로그램 실행 파트너로서 대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또한 CCI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현재 다른 도시, 건물 소유주, 기관들과도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CCI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Energy Efficiency Building Retrofit Program), 하이브리드 운송(Hybrid Transportation), 폐기물 관리(Waste Management), LED 조명, 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청정에너지 개발(Clean Energy), 지속가능한 산림개발(Forestry),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을 각국의 정부 및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Energy Efficiency Building Retrofit Program)

2007년 5월 빌 클린턴 대통령은 CCI의 최초의 프로그램으로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을 진행하기로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ESCO), 금융기관, 대도시들이 참여하여 대도시 소유의 건물, 개인 소유의 건물, 상업건물, 학교, 공공주택 등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건물은 대부분의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런던이나 뉴욕 등의 도시에서는 70%의 배출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제품, 기술과 시스템을 결합하여 공공 및 개인 소유의 건물들을 개조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현격하게 줄이고 절약된 에너지 비용으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성과계약(Energy Performance Contracting, 성과보증)

CCI는 세계적인 ESCO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에너지성과보증을 이용한 최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ESCO기업들은 CCI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이러한 최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계약 내용과 조건 아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빌딩 개조의 증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공능력을 배가시키기로 하였다. CCI의 성과보증계약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은 최대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표준화, 가격책정 및 프로세스의 합리화를 통해 프로젝트 비용과 사업의 위험성을 줄이고 있다.

CCI의 이러한 비전에 공감한 ESCO 회사들은 각 건물 개조 프로젝트의 에너지 절약과 최대 비용을 보장하고, 보장된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보상을 하고 계약 시 협의된 에너지 절약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추가 비용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CCI와 파트너십을 맺은 ESCO 회사들은 지난 20년간 US\$ 20 billion 이상(약 20조원 가량)의 에너지성과보증계약을 바탕으로 한 건물개조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이 기간 동안 CCI의 파트너 ESCO 회사들은 99.7%의 보장된 계약조건을 충족시켰으며 미달된 0.3%는 보상을 하였다.

(좌측 페이지) 건물에너지합리화 참여 대표적인 건물

1. 서울시청 별관
2. 휴스턴시청
3. GE 건물

CCI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파트너 ESCO 회사들 외에 각국의 현지 ESCO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개조비용 파이낸싱(Retrofit Financing)

대부분의 건물 소유주들에게 있어 설비개조비용이 사업참여에 가장 큰 장벽이었으나 ESCO사업의 성과보증계약을 이용함으로써 ESCO사업자가 보증한 일정한 에너지절감비용으로 ESCO사업자와 협의된 계약기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건물 소유주는 예상되는 에너지 절약분을 감안하여 건물개조에 필요한 자금의 100%를 대출받아(한국의 경우 정부 지원의 ESCO자금) 순수 초기 투자비용 없이 건물개조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즉 성과보증계약을 통해 건물 소유주는 개조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 절약분을 100% 가지게 된다. 이 절약분으로 초기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CCI는 건물 소유주들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위해 현재 금융회사들과 함께 혁신적인 방식의 금융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제품구매 지원(Purchasing Assistance)

CCI는 에너지효율 및 청정에너지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들과 협력하여 공동구매 방식의 제품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명기기, 냉방기기, 태양에너지 관련기기, 창호필름 등의 생산자들과 협의를 마쳤고 추가적으로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다. 제품 가격의 인하는 건물개조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진행 상황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0여 개의 건물이 참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여러 단체, 기업, 시와 협력을 맺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C40 도시들이 시가 소유한 건물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미국대학총장기후변화협의회(American College and University Presidents Climate Commitment, ACUPCC)는 400여 회원 대학총장들의 친환경 캠퍼



미국대학총장기후변화협의회 (ACUPCC) 소속 건물

스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CCI와 협력을하기로 발표하였다. 세계 최대의 부동산 관리회사인 GE Real Estate, 세계건물주및관리자협회(Building Owner and Manag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뉴욕주택청, Empire States 빌딩, 시카고에 있는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건물인 Merchant Mart, 여러 호텔, 쇼핑센터, 병원 등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서울시 소유의 별관 건물과 산하기관 건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민간분야에서도 신세계 그룹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클린턴 재단(Clinton Foundation)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말 전 세계 일반인들의 힘을 결집하여 국제적인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클린턴 재단을 설립하였다. 오늘날 재단은 세계적인 NGO로 성장하여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8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재단 본부는 뉴욕시, 아칸소스주의 리틀락(Little Rock), 보스톤에 두고 있다. 재단은 각 국 정부, NGO, 지역사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빈곤, 질병, 교육,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단은 현재 아래의 6개의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 클린턴 질병 예방 이니셔티브(Clinton HIV/AIDS Initiative)

아프리카, 동남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질병 퇴치를 위해 각 국 정부와 협력하여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140만명의 HIV/AIDS 감염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제를 구입하여 생명을 구하고 있다.

2 클린턴 기후 변화 이니셔티브(Clinton Climate Initiative)

적극적인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의 정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Clinton Global Initiative)

클린턴 재단의 자선단체 회의로 1년에 한 번씩 뉴욕에서 개최되며 각 국의 지도자, NGO대표, 기업의 CEO 등이 참가하여 적극 참여하는 것을 공포하고 현안에 대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4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한 연대(Alliance for Healthier Generation)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학교 급식, 비만퇴치 등의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5 클린턴 중소기업 지원 이니셔티브 (Clinton Economic Opportunity Initiative)

미국 내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6 클린턴-헌터 개발도상국 지원 이니셔티브 (Clinton-Hunter Development Initiative)

영국의 사업가인 헌터경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클린턴 재단 홈페이지/ www.clintonfoundation.org

